

영란이와 제평이



한국금융

조범형 기자



기자 생활을 시작한 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5년차를 바라보는 주니어 기자에 불과하죠. 기자협회 수필 양식에 맞춰 ‘잊지 못할 취재원’, ‘취재 과정의 에피소드’, ‘보도되지 못한 뒷이야기’ 같은 몇 가지 주제를 고민해보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써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정말 재미가 없었습니다. 출입처가 건설부동산이다 보니 대부분의 사건과 제보는 말 그대로 누군가의 전재산, 인생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가볍게 웃으며 풀어내기엔 너무 무겁고, 그렇다고 감동적으로 포장하기엔 현실이 너무 짝박혔습니다.

그러다 문득 최근 기자로서, 아니 언론계 전체를 흔들고 있는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뉴스제휴위), 흔히 말하는 ‘제평위’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합니다. 위원도 아니고, 지금 흐름에 영향을 끼칠 만한 힘이 있는 기자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기사 몇 건 올리고, 발제 짜고, 데스크 눈치 보며

살아가는 주니어 기자일 뿐입니다. 그래도 적어도 지금 이 변화 한가운대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느끼는 건 말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참고로 이 글은 언론인이라기보다 일반인의 시각에서 시작합니다. 제목에 ‘영란이’가 들어간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언론과 전혀 상관없던 시절, 국장이나 선배들에게 “예전엔 이런 일도 많았다”는 도시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들으며 꽤 충격 받았던 기억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흔히 ‘김영란법’이 시행됐습니다. 당시 저는 언론과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고 있었고, 법 영향을 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 공무원이나 교직원들은 얼마나 받아먹길래 아예 법까지 만들어 끌어버리려는 걸까’ 하는 막연한 생각 정도만 했습니다.

당시 가장 현실적인 반응을 들려준 건

대학 선배였습니다. 강북구 인근 대학에서 교직원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형이었는데, 어느 날 술자리에서 꽤 억울하다는 듯 말하더군요.

“나는 뭘 받은 적도 없는데 왜 사람들이 교직원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보는지 모르겠다.”

따지고 보면 교수나 교사도 아닌 교직원이었습시다. 청탁을 받을 만한 자리도, 그럴 만한 이유도 없는데 법의 울타리 안에 묶여 억울하다는 심정이었겠쥬. 그 말을 들을 땐 그냥 ‘촌지 같은 게 실제로 있긴 있었구나’ 정도로만 흘려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자연스럽게 사라질 문화겠거니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강산이 변할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청탁금지법 자체가 가벼운 농담 소재처럼 소비되기도 합니다. 술자리에서 “영란이 누나 오신다”, “이건 영란이 컷이다” 같은 말을 농담처럼 하는 걸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임원급 홍보팀이나 국장급 선배들 사이에 끼어 불편한 술자리를 하다 보면, 김영란법 이전 세상에 대해 아련한 향수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종종 만납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안 끝났을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실명이나 사례를 말하긴 어

렵지만, 당시 언론계가 박봉에도 어찌저찌 굴러갔던 이유를 설명하는 이야기들은 꽤나 많이 들었습니다. 대기업도 아닌 중견·중소 건설사가 해외 사업을 하게 될 경우, 기자들을 동남아나 중동으로 초청해 취재를 겸한 골프와 식사 자리가 이어졌다는 이야기, 지방 분양 현장이 있으면 기자들을 버스로 실어 나르고 숙박과 식사 비용을 모두 시행사나 홍보대행사가 부담했다는 이야기 같은 것들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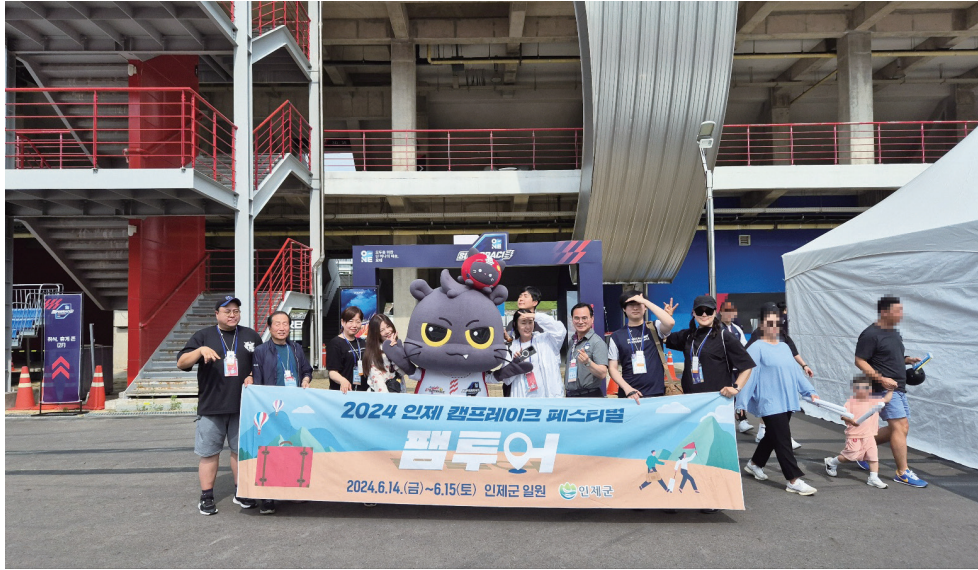
그런데 시대는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하나는 김영란법이 만들어낸 변화고, 다른 하나는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입니다. 둘이 맞물리면서 기자와 업계 사이의 역학 관계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예전에 홍보팀이 기자를 모셔 가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기자들이 행사 하나를 붙잡으려고 경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행사가 하나 뜨면 메일로 공지나 단독 방에 링크가 올라오고, 기자들은 거의 콘서트 티켓팅하듯 신청 버튼부터 누릅니다. 조금 늦으면 “죄송합니다. 인원이 마감됐습니다”라는 답이 돌아옵니다. 기자가 귀한 시대가 아니라, 행사가 귀한 시대가 된 겁니다.

최근엔 꽤 인상적인 경험도 있었습니

2026 기자의 세상보기



지자체의 초청으로 인제를 가게 됐다. 인제군의 명소나 인제군이 홍보하려는 장소를 기자들이 단체로 방문해 체험하고 기사화 하는 경우도 있다.

다. 한 건설사가 재건축 조합원 대상 홍보관을 언론에 공개했는데, 조합원 방문이 없는 점심시간 딱 한 시간 동안만 기자들에게 미디어데이를 열었습니다. 그것도 기자 100명을 두 팀으로 나눠서 말이죠. 사전 신청도 아니고 현장 선착순이었습니다. 순간 ‘이게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바지런히 움직여 미리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건설사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전 접수 없이 현장 선착순은 처음 보는데요?”

그 관계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합원 일정 맞추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요. 솔직히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습니다.”

관련 문의만 100곳이 넘게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거의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예전엔 기사를 모으기 위해 애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기자들이 행사 하나 참석하려고 달려드는 시대가 됐다는 게 그 말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선배들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하지만, 저 같은 주니어는 애초에 그 이전 세상을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영란이’가 바뀌놓은 세계가 저에겐
그냥 원래 세계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자들을 더 크게
흔드는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평이입니다.

영란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끊어
낸 존재라면, 제평이는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 태도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저 역시도 이미 어떤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보도자료를 받으면 중요하지 않은 문
단을 털어내고, 제목을 조금 손보고, 순서
를 정리해 송고하는 과정이 어느 순간 거
의 반자동처럼 손에 익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일하던 선임은 농담처럼 “보도자료
는 아무리 길어도 5분 안에 처리해야지?”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단체 독방에 그날 처리
하지 못한 보도자료 제목들이 줄줄이 올
라왔습니다.

“퇴근 전에 이것들만 처리하고 가자.”

그 말은 특별히 과중한 업무라는 느낌



롯데타워 전망대에서 진행된 스카이런. 선수들은 지상 1층부터 롯데타워 전망대 최상단까지 뛰어올라가는 마라톤이다. 취재를 온 기자들은 손님용 엘리베이터가 아닌 직원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조차 아니었습니다. 그냥 업계 일상이었습
니다.

다른 출입처도 비슷하겠지만 건설부동
산 출입 기자에겐 하루에도 정말 많은 자
료가 쏟아집니다. 분양 일정, 수주, 착공,
실적 발표, ESG, 사회공헌, 브랜드 리뉴
얼, 조정 특화, 스마트홈, 커뮤니티 시설까
지 비슷한 형태의 자료들이 하루 종일 메
일함으로 들어옵니다.

아침 회의 전에 발제를 고민하고, 오전
엔 전화 돌리고, 오후엔 행사나 현장을 다
녀오고, 저녁엔 밀린 자료를 정리하다 보

2026 기자의 세상보기



취재 협조를 받아 1박 이상 지방이나 먼 곳을 갈 경우 주최측에서 든든한 식사 자리를 준비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건설사나 협회에서 진행된 세미나, 포럼에 참석할 경우 고급 도시락을 먹을 수 있다.



취재를 간다고 해도 뭐든지 기사화할 수 없는 경우도 다반사다. 선거 기사의 경우 선관위의 서슬퍼런 경고도 받을 수 있고 네이버 제평위 별점이 걱정되면 데스크에서 질하는 경우 등 점차 몸을 사리게 된다.

면 하루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다 데스크에서 “새로운 거 없냐”는 말이 떨어지면 이미 머릿속은 다시 내일 발제로 넘어 갑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보도자료를 빠르게 정리해 기사화하는 건 어느 순간 업무 효율에 가까운 감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제평이의 기준이 처음엔 낯설게 느껴진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제목 하나, 표현 하나, 기업명 노출 빈도 하나까지 이전보다 훨씬 민감하게 바라보는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제목이 클릭 좀 나오겠다”, “이 정도면 무난히 송고되겠다” 정도였다면, 요즘은 “이거 혹시 별점 먹는 거 아니냐”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숫자입니다.

2년 안에 부정평가 점수가 10점 이상 누적되면 네이버 제휴 계약 해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현장 기자들에게 꽤 직접적인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CP 유지 여부는 단순한 플랫폼 노출 문제가 아니라 언론사의 생존과도 연결되기 때문입

니다.

실제로 달라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자료보충 기사로 송출하려면 단순 문장 수정 수준이 아니라 추가 요소가 필요하고, 보충 내용이 기사 전체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는 기준은 현장 기자들에게 꽤 현실적인 숙제입니다. 취재원 발언, 현장 반응, 시장 분위기, 추가 데이터, 실명 인터뷰까지 채워 넣어야 하고, 익명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받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예전 같으면 보도자료에 업계 분위기 한두 줄 정도 덧붙이고 송고했을 기사도 이제는 한 번 더 전화를 돌리게 됩니다. 실제 현장 분위기를 물어보고, 다른 회사 반응을 듣고, 숫자를 다시 확인하고, 가능하면 실명 코멘트까지 받아 넣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건설부동산 업계 특성상 모든 이야기를 실명으로 말해줄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비사업이나 PF, 미분양, 조합 갈등 같은 민감한 이슈는 대부분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예전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도로 지나가던 문장들도 이제는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지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런 기준 자체가 무리한 요구라고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기자라면 당연히 현장 취재를 하고,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추가 확인과 검증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어린 시절 막연하게 상상했던 기자의 모습도 아마 그런 모습에 가까웠을 겁니다.

언론사에 들어오기 전 저는 영화 속 기자들처럼 거대한 권력 비리를 쫓는 모습 정도만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훨씬 생활형이었습니다. 클릭 수를 고민하고, 노출을 고민하고, 광고주를 의식하고, 발제를 고민하고, 데스크 통과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에 또 다른 고민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이 표현이 홍보성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기업명을 너무 반복한 건 아닐까.”

“이 정도면 별점 대상이 되진 않을까.”

실제로 최근 들어선 기자들끼리도 “이건 너무 광고 같지 않냐”, “이 표현은 빼야겠다”, “최소한 현장 취재 한 줄은 더 넣자”는 이야기를 예전보다 더 자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자라면 당연히 했어야 할 고민을 다시 하게 만드는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제평이를 완전히 선이라고도, 악이라고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분명 기존 언론 생태계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일 겁니다. 기사와 영업의 경계가 흐려진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보도자료 재가공만 반복되는 기사들에 대한 피로감도 있었겠죠. 그걸 바꾸겠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다만 한편으로 묘한 걱정도 듭니다.

독자를 위해 기사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네이버 제휴와 CP 유지를 위해 기사를 고민하게 되는 순간이 점점 늘어나는 건 일반 독자들에게 설명하기 쉽지 않은 풍경입니다.

좋은 기사보다 ‘안전한 기사’를 먼저 고민하게 되는 건 아닐까.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감각보다 ‘이 표현이 괜찮은가’를 먼저 따지게 되는 순간도 분명 생깁니다.

가끔은 취재 메모보다 별점 기준표를 더 오래 들여다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

할 때도 있습니다. 발제 아이디어보다 “이거 문제될까?”를 먼저 고민하는 순간도 생깁니다. 기사 쓰는 손보다 체크리스트가 먼저 움직이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화두를 논하기엔 저는 아직 내일 아침 발제를 고민해야 하는 주니어 기자에 더 가깝습니다.

그저 분명한 건 있습니다.

2016년 이후 영란이가 기자 주변 사람들의 태도를 바꿨다면, 2026년의 제평이는 기자가 기사를 쓰는 태도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변화가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기자들은 모니터 앞에서 제목 한 줄을 지웠다 다시 쓰고, 기업명을 하나 털어냈다가 다시 넣어보며 이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기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역시도 내일 아침이면 또 “새로운 척하는 발제”를 고민하면서 동시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이거... 별점은 안 먹겠지?”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